

●광주매일신문 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5강 현장강의 김상덕 세계조각장식박물관장·노승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장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

전 세계 100여개국 1만여점의 공예품과 조각 작품이 전시된 광주 동구 금남로 세계조각·장식 박물관(관장 김상덕)에서 지난 2일 광주매일신문 제6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5강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강의는 ‘박물관 산책’이라는 주제로 김상덕 관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노승일 본부장이 특강을 맡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케이터링 간편식 이후에 ‘박물관투어’가 이뤄졌다. 강의 참가자들은 김 관장이 30년간 100여개국을 돌며 모은 전시 작품 설명을 들었다.

‘박물관 산책’에 필요한 설명은 김 관장이 직접 맡았다. 김 관장은 아프리카 ‘쇼나(shona)’ 부족이 조각한 ‘쇼나 조각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화석’, 세계 각국의 국제라이온스협회 배지 이야기 등으로 강의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서 세계 공예품의 가치와 자신이 박물관을 설립한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관장은 “공예품과 조각작품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다”며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의 공예품과 조각 작품들을 하나씩 사서 모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관장은 “이렇게 모은 공예품들을 자신만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예향 광주시민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다”며 “공예품들을 전시

100여개국 1만여점 눈길…공원·미술관도 추진 노 본부장 “적폐와 싸워 보란듯이 이기고 싶다”



제6기 창조클럽아카데미 제5강작가 지난 2일 광주 동구 금남로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 현장수업으로 열린 가운데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할 공간을 구입하고 박물관을 만들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관장은 “꿈은 여기서 그치는 것

이 아니다”며 “조각 공원을 만들고 한쪽에는 박물관, 미술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종 꿈”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발자인 노승일 본부장도 이날 ‘꿈’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노 본부장은 “국정농단의 후속편이 아닌 오늘은 제 삶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며 “K스포츠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노승일이 간다’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책도 집필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부딪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 노 본부장은 “독일 북(Book)콘서트를 갔을 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잡는 것이 바로 ‘꿈’이었다”고 부연했다.

노 본부장은 “1997년 정치인이 되고자 꿈을 꿔지만 최순실을 만나 첫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꿈이 불쑥 튀어 나왔다. 그때 ‘적폐와 싸워서 보란 듯이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노 본부장은 “꿈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며 “만약 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지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본부장은 “꿈을 향한 도전은 아름답지만은 않다.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 꿈이 이뤄졌을 때 더 활기를 되찾고 기쁨의 눈물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남부대 ‘호남권 주류안전관리센터’ 선정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호남권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수준 진단, 애로사항 현장 컨설팅, 교육 및 분석 실습, 소규모 HACCP 기술 지원 등을 실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남부대(과제 총괄 정종태 교수·사진)는 5월부터 11월까지 45개의 호남권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합교육 및 실습교육, 우수업체 견학,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남부대는 이를 통해 주류의 위생안전이 향상되고 내실화하도록 주류안전관리 지원 업무를 시행한다.

정 교수는 “호남권의 중·소규모 주류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증진해 가겠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선도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호남대 최형전씨 ‘미스코리아지역예선’美

호남대학교 최형전(24·교육대학원 미용교육 전공·사진 왼쪽)씨가 ‘2019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전남·제주 선발대회에서 미(美)에 선발됐다.

한국일보와 한국일보E&B 공동주최로 최근 무안군 남도소리유평타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일자로(25·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가운데)씨가 진(眞), 강지수(24·장안대학교 항공관광과 졸업·오른쪽)씨가 선(善), 최형전씨가 미의 영예를 안았다.

최씨는 지난 2월 호남대 뷰티미용학과(학과장 전현진)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미용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2019미스 전남, 제주’ 지역예선에서 진·선·미에 선발된 3명은 오는 7월1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지역대표로 참가한다.

/김종민기자



청북회, 청소년운영위·제4기 청바지기자단 발대식

(세)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청북회)의 제8기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제4기 청바지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4일 광주 영주체육관 국민생활관 내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청바지기자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을 모토로 활동하는 청소년 기자단이다. 제8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제4기 청바지기자단은 고교생 7명, 학교밖청소년 3명, 대학생 20명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운영위는 (세)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의 발전방향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2~4시 열리며, 협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바지기자단은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 놀 수 있는 장소,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소개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신문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겨울기자



호남직업전문학교, 필리핀 직업훈련교사 신기술 연수

(세)호남직업전문학교(이사장 김운세)는 필리핀 직업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특수용접부문 신기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제로터리클럽의 VTT글로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호남직업전문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신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VTT(Vocational Training Team)는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르치거나,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여행하는 전문인들의 그룹을 가리킨다.

VTT 1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호남직업전문

학교 박상철 용접기능장은 “올해 연수에 참여한 15명의 교사들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15곳의 국립기술교육기관 교사들로 필리핀 교육청과 국제로터리클럽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고의 훈련교사”라고 말했다.

이번 특수용접과정은 크게 ▲고압금강 구조물의 보수 및 용접 ▲발전플랜트의 고압밸브 및 발전용 보일러 튜브 용접 ▲금형을 보수 유지할 수 있는 정밀 가스팅스텐 아크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이며, 호남직업전문학교의 최진식 설비를 활용해 교육이 진행된다.

/김종민기자



GIST, 지역 기업과 소통 활성화 위한 간담회 성료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산)가 최근 총장실에서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 MBA) 제9기 수강생과 함께 ‘총장과 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우)동양고속 박정순 대표이사(사)를 비롯해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GIST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송종인 부총장과 박성구 대외협력처장은 GT MBA 9기 원우들과 함께 GIS

T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GIST의 모든 구성원이 지역 기업체와 더욱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총장은 “지역의 기업 대표들이 교원들과는 기술교류를 통한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이루고, 학생들에게는 인생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멘토링 봉사단 발족·학생 결연식

광주푸른꿈창작학교(교장 최종안)가 지난 2일 교내 강당에서 청소년 멘토링 위원회 대상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기사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학생 결연식’을 개최했다.

‘청기사 자원봉사단’은 학업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이다. ‘파트너십’ 등 청소년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

문데 푸른꿈창작학교 이외수 행정실장을 회장으로 이날 발족했다.

청기사 멘토링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멘티로 선발한 후 멘토와 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활전반에 개입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스스로 삶의 모델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을 멘토로 위촉했다.

/김종민기자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호응

한국유네스코목포협회(회장 정해선)가 목포사랑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유네스코목포협회는 최근 목포 원도심 문화거리 일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사랑운동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협회는 관광객들과 시민들 그리고 상가들을 돌며 목포사랑운동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며 물티슈와 홍보전단을 나눠주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목포시가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는 이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행사를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사랑운동은 물론 불우 이웃돕기, 다문화가족한글문화교실, 학생 수학



체교교실, 청소년 문화탐방, 외국과의 문화교류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손일갑기자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안선영별세 = 발인: 8일(수) 오전9시, 장지: 영락공원(화) 연락처: 신관3층301호(250-4471)

▲홍정희별세 = 발인: 8일(수) 오전8시, 장지: 영락공원(화) 연락처: 본관2층7호(250-4407)

▲구금선(미리아)별세(배우자·정진채남) 정창용, 창덕, 창부, 명순, 명남, 미경, 명화씨 모친상=발인: 7일(화) 오전9시, 장지: 광주평동선영(화) 연락처: 본관4층VIP장곡(250-4413)

▲정순영별세 이종근, 중옥, 민숙, 영숙, 영희, 미란씨 모친상=발인: 7일(화) 오전8시, 장지: 나주시천주교묘역(화) 연락처: 신관2층VIP에강(250-4470)

▲홍희조별세 홍창의, 화영씨 부친상=발인: 7일(화) 오전8시, 장지: 영락공원(화) 연락처: 신관3층302호(250-4472)

▲최성현별세 최재호, 영희, 은서씨 부친상=발인: 7일(화) 오전8시, 장지: 임실호국원(화) 연락처: 본관2층9호(250-4409)

그린장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